

심판 및 기록활동 위탁계약서

2025년도

남양연구소 주말리그 위원장 권호경 

대한야구위원회 회장 박순우 

심판 및 기록활동 위탁 계약서

남양연구소주말리그 위원장 권호경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대한야구위원회 회장 박순우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심판 및 기록활동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

이 계약은 “갑”이 현대남양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사회인야구대회 남양연구소 주말리그에 “을”이 심판 및 기록위원을 파견하여 심판 및 기록활동(이하 “심판활동” 이라고 통칭한다)을 하게 함으로써, 리그대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책임)

가. “갑”의 책임.

- ① “을”이 자유롭게 심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하며, 판정 등 심판활동의 고유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.
- ② “을”의 심판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경기일정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“을” 및 “을”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경기 일정이 사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까지 “갑”의 홈페이지를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“을”의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우천 등으로 긴급하게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어도 경기시작 2시간 전에 “을”의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나. “을”의 책임.

- ① “갑”이 주최하는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② 주어진 여건 하에서 경기장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여 경기에 임해야 한다.
- ③ 심판 판정과 경기의 중단여부 결정 등을 제외한 경기운영 등에 대해서는



“갑”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하며, “갑”의 결정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④ “갑”에게 “을”의 대리인 1명을 지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3조 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당해년도 “갑”의 리그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리그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 4조 (심판 및 기록활동비)

가. 경기는 2시간 시간제한 경기이다.

나. 경기는 리그 21경기, 플레이오프 7경기로 총 28경기이다.

다. 심판은 1심제(단, 플레이오프는 2심제)이다.

라. 심판활동비는 경기당 75,000원/인이고, 총 35인이 소요되므로, 일금 이백육십이만오천원(₩2,625,000)이다.

마. 기록활동비는 경기당 55,000원/인이고, 총 21경기이므로 일금 일백일십오만오천원(₩1,155,000)이다.

제 5조 (심판 및 기록활동비 지급 인정기준)

가. 공식경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식 심판 및 기록활동으로 인정하며, 제4조에서 정한 활동비를 전액 지급한다(강우 및 일몰 콜드, 몰수경기 포함).

나. 우천, 강설 등 일기로 인하여 취소가 결정된 경기에 대해서는 심판 및 기록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6조 (대가의 지급)

“갑”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연간 심판 및 기록활동비 전액 일금 삼백칠십팔만원(₩3,780,000)을 아래의 계좌로 지급한다.

은행명	예금주	계좌번호
국민은행	박순우	006002-04-158817

제 7조 (경기 규칙)

가. 경기규칙은 남양연구소 주말리그 규정에 따른다.

- 나. 경기는 사전에 계획된 리그 일정에 따라 토요일에 2회 개최한다.
- 다. 상기 ‘가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야구위원회 공식 규칙을 준용한다.

제 8조 (계약기간 연장)

“갑”과 “을”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내용 및 연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 9조 (기타사항)

- 가.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,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나. 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와는 무관한 사인간의 계약이다.

제10조 (해석)

이 계약서의 조항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해석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“갑”

“을”

남양연구소 주말리그

대한야구위원회

위원장

권 호 경



회장

박 순 우

